

장묘제도에 위한 납골당 공간디자인에 대한 사례연구

A study of a charnel space planning by funeral systems

전현찬

동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Jeon, HyeonChan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Design, Dongseo Univ

Keyword: charnel, Funeral system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C에 들어오면서 보다 쾌적한 인간 환경의 창조를 목표로 공간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전문인들의 배출 및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간에게 보다 우호적인 공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사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를 수용 할 수 있는 공간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죽은 자의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산자와 죽은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현재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국토의 약1%인 989km²에 이르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약 9km²씩이 묘지로 잠식되어가고 있다. 사망자가 모두 묘지 매장을 할 경우에 매일 전국적으로는 740개 정도의 새로운 묘지가 필요하여 전국을 묘지강산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묘지는 증가할 것이다.¹⁾ 이러한 묘지의 심각성으로 인한 해결방안은 장묘관습을 “화장화”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으나 막상 자신이나 부모를 화장하겠느냐고 물으면 망설이거나 화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화장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납골 제도, 납골시설, 납골형태 등의 부족에 따른 화장문화유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납골당을 비교 분석하여 사람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이며 개방적인 납골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토지 이용면적 축소로 인해 납골권장운동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60여개에 달하는 납골당은 열악한 주변환경, 창고식시설, 충분치 못한 복리·후생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납골당에 대한 의식과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과 표현을 살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조형론적 접근으로 묘지가 지니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죽은자의 안식처이며, 산자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납골당을 제시하려 한다. 넓지 않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대량의 유골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납골당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보편화 시키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세군대의 납골공원을 비교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한 국내 기관의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시민의

식을 알아보고 경제적 매장과 화장으로 인한 집단납골시설의 경제성을 살핀다.

2. 국내외 장묘문화의 실태

2-1 시민의식 조사

1999년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조사한 설문문에 따르면 묘지공급의 한계성을 알고 있다가 61.5%로 비교적 높았으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매장을 화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39.9%,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필요가 30.1%로 나왔다. 위의 두 질문으로 볼 때 현재 장묘문화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며 화장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이다. 본인, 가족의 화장에 대한 질문의 경우 찬성한다가 76.7%, 60.2%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장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성묘를 통한 가족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로 응답 36.1%를 나타내었고, ‘두 번 죽이는 것 같아서’가 26.1%로 의견이 나왔다²⁾. 화장후 처리방법으로는 가족단위로 납골함을 보관하는 가족납골묘 형태(57.5%)를 선호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납골당에 대해서는 기계적이고 경건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42.6%로 나타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골당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납골당은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이어야 하고 소규모 공원 형태의 시설을 갖춘 혐오시설이 아닌 편익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시설이어야 하겠다.

2-2. 우리 나라 장묘문화의 실태

최근 들어 화장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고있고, 화장 예약율도 90%를 웃도는 등 매장 위주의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km²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장터의 3배이다. 또 우리나라 연 장묘관련 총비용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1건당 장묘비용은 약 7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치르고 있다.

한국형 납골당 등장으로 조상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으로써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도 있어 장례비용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비도 저렴하여 부담이 적어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납골당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최근 들어 몇몇 업체가 한국적 정서에 들어맞는 한국형 납골당을 선보이고 있다.

1) 보건복지부, 공설사설법인 묘지현황, 1995

2)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화장 및 납골시설, 개정장묘법 등에 관하여, 1999, p.11~p.15

2-3. 정부의 장묘문화 시책

정부에서는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고 있고, 신규묘지 확보지양, 호장, 납골시설 증점확충, 기존묘지의 재사용 및 납골묘지로 전환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화장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추진은 다음<표 2>와 같다

		1998	1999	2000	2005	2010
사망자	사망률(%)	3.8	3.9	4.0	4.5	5.0
	사망자수	41,800	42,900	44,000	49,500	55,000
시립 화장장 이용자수	추계 54.4%	16,086	17,383	18,855	28,528	42,954
	화장률 60%	17,501	18,703	20,615	31,192	47,692
화장장 시설 수요	현재 화장 능력	2	2	2	3	4
	적정 화장 능력	2	2	2	3	5
납골수요	납골률(%)	41.1	48.6	55.6	75.2	79.3
	납골수요	7,193	9,090	11,462	23,456	37,820

<표 2> 묘지정책목표설정

2-4. 납골당의 구성요소

1) 납골실

화장후의 유골이 안치되는 곳으로 현행법상 연고자가 있는 자의 경우 15년 사용이 가능하고 무연고인 자나 행려인 경우 10년 사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실에는 납골함이 가로세로의 여러 줄로 배열되어 있다.

2) 참배실

별도의 제단시설이 되어있는 곳에서 제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건물내의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3) 유택(幽宅)동산

죽은 사람의 집이라는 뜻으로 납골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이곳에 유골분이 뿌려지게 되는 곳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유택동산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설이 허술하다.

4) 참배방법

납골당의 참배방법은 직접참배와 간접참배로 나눌 수 있는데 방식에 따라 구분 지으면 다음<표 3>과 같고 국내의 참배방식은 간접참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분	직접참배	간접참배
참배방법	납골실 신위에 참배	홀에 제단이나 상징적 시설에 참배
정신적 만족도	평면묘지에 참배하는 것과 동일	직접 다가갈 수 없는 불만감
상징적인 시설	불필요	시설내외에 참배용 기념비를 설치 필요
납골실의 구조	납골부분, 제단	납골부분
홀의구성	입구홀,계단,승강기	입구홀,참배용제단,기념비
설비	공조,환기,배연,위생설비	공조, 환기,배연

<표 3> 참배방식에 따른 구분

3. 국내의 사례조사

부산영락공원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3) 東京都 新靈園等 構想委員會 報告書, 1990 p.199

있는 곳으로 사례 조사중 그 계획개념이 분명하게 가장 잘 된 곳이라 할 수 있다. 납골당 건물과 넓은 부지, 정돈되고 청결한 주변환경이 조성되어 전체적으로 계단식 배치로 안정적이고 전면에는 공원식 묘지로의 형태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천자봉은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의 구분이 없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 할 수 없어 위계성과 존엄성 부여가 힘들다. 성남영생관리사업소는 중앙홀중심으로 납골실을 배치하여 홀이 좁아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

	영락공원	천자봉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건축 개요	위치: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494-1 준공연도: 1995. 3 연면적:약61.166평 규모: 약64.520위 안치	위치:경상남도 진해시 재덕동 750번지 일원 준공연도:1990. 11.10 연면적:약2.163평(납골당:1.618) 규모:약15.408위 안치	위치:경기성남시 중원구갈현동 준공연도:1997.1 연면적:약5900평 규모:약20.000위안치
배치 계획 분석	북향재치로 계단을 통해 진입 전면에 공원식 묘지	서향 배치로 도로진입 동남향 공원식묘지	북향배치로 계단을 통해 진입 전면에 화장장 및 장례시설
동선 계획 분석	입구에 주차장시설로 정숙한 환경 유지 중앙홀형배치 관리동의 설치로 동선분리	납골당 전면에 주차장배치로 혼잡 중앙홀형 배치 이용자와 관리자 동선 동일	평면은 중앙홀형 배치 이용자와 관리자의 동선동일
평면 계획 분석	평면의 기능적 분할 (제1,2영락원으로 분할)	중앙홀을 중심으로 납골실배치 비실용성 엘리베이터 설치	중앙홀을 중심으로 납골실을 배치 하였으나 홀이 좁다

<표 4> 사례조사분석표

4. 결론

납골당공간디자인에 있어서는 산자와 사자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납골당은 너무 형식적인 공간배치와 창고식 시설등으로 인해 폐쇄적이고 혐오적인 시설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납골당중 영락공원은 진입 부분에서부터 휴게공간까지 확보하고 방문객의 공원의 이미지를 부과하여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런 납골문화를 바탕으로 자연의 축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건축요소를 도입하여 전정 중정 후정의 성격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친근감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실내공간에 있어서 제단실은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납골당은 죽은 자의 공간이지만 산 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죽음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며 엄숙함이나 추모를 위한 경건함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납골공간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